

brilliant memories: artwork by 김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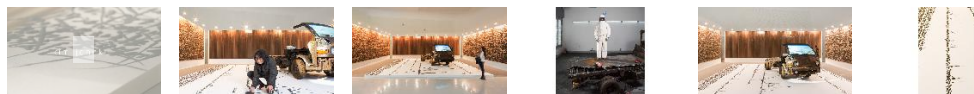
참외향 가득한 트럭



자동차와 시, 서, 화 · 쇧가루 산수화-성주꼐참외

김종구는 거대한 쇧덩어리를 그라인더로 갈아서 형체 없는 미세한 쇧가루로 만든 후, 그것으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화되어 가는 과정을 살피면서 본질적인 물질의 변화에 주목해왔습니다. 그는 현대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단단한 철()을 이용하여 급격한 물리적 변화와 소멸의 과정을 역설적으로 다루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함의하고 있는 비물질적 정신성(정서) 또한 강조했습니다. 견고한 형태에서 빠져나온 비정형의 물질, 육중한 무게를 다 덜어낸 가벼움, 구축된 수직성을 단숨에 전복시킨 수평적 구조 등을 통해 김종구는 현대 산업사회의 거대서사로부터 그 안에 봉인되어 있던 개인의 신체적인 감각과 시적인 정서를 추출해냈습니다. 이는 그가 늘 말했던 것처럼, 거대한 현대 산업사회의 둔탁한 틀 속에서 한 개인이 느끼고 체험하는 미세한 감정과 정서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일입니다. 그는 쇧의 물리적 형태 변화를 통해 현대사회의 물질적 가치와 그것을 초월하는 극한의 노동과 비물질적 송고함을 섬세하게 탐색했습니다.

이번 브릴리언트 메모리즈 프로젝트에서, 김종구의 작업에는 참외 농가에서 사용된 운반용 포터 트럭이 등장했습니다. 참외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신식 트럭이 들어오면서 겪게 된 일상의 편리함과 생활의 변화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농사꾼 아버지의 포터를 떠올리는 아들의 사연에, 작가는 <자동차와 시, 서, 화>을 상상했습니다. 그의 작업은 포터의 몸체를 그라인더로 가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종구는 수명이 다한 아버지의 포터를 가져와 마치 화장()하듯, 형태에서 빠져나온 비정형의 쇧가루들을 쓸어 모았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바닥에 커다란 광목을 펼쳐놓고 아들이 바라본 아버지의 풍경, 즉 거대한 사회 속에서 한 개인이 이룩한 삶의 모습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러한 작가의 행위는 불안정한 텍스트들과 함께 바닥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뼈대만 남겨진 포터의 앞 유리에 투사됩니다. 한편 포터에서 나온 쇧가루로 '성주 꼐참외'라 적은 소박한 현판은 아버지의 삶을 기념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고, 이러한 의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대한 산업사회의 메커니즘에 종속돼 감쪽같이 가려져 있던 한 개인의 삶을 함께 기념하게 됩니다. 글 · 안소연



[brilliant memories] 작가 김종구 인터뷰 & 메이킹

사연 소개



저의 고향은 참외로 유명한 경북 성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은 포터를 사셨습니다. 집에서 비닐하우스와 공판장을 거뜬히 신고 다니는 포터 덕분에 농사도 잘되었고 저 역시 편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참외값이 폭락했습니다. 부모님은 포터에 싱싱한 참외를 신고 경북 곳곳에 팔러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농사일과 직거래 판매를 병행한 지 10년. 이제 곧 철순을 맞으시는 부모님께 포터가 생계의 수단이 아닌,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작가 김종구



작가 인터뷰

참외향 가득한 트럭 사연을 읽고 아버지의 일과 가족에 대한 애정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트럭은 아버지의 동료이자 가족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제 아버지와 함께 멀리까지 달릴 수는 없지만 가정과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마을의 상징물로 재탄생 시키고 싶습니다.

프로필

철을 갈아내는 퍼포먼스와 철가루 설치미술로 유명한 김종구는 서울대학교 및 동 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영국 첼시 컬리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90년 대한민국 미술 대전 대상과 2002년 김세중 청년조각상을 수상하였으며, 광주 비엔날레 및 뉴욕 MoMA PS-1 레지던스 프로그램(2002-2003)에 참가하였습니다.